

美 한국불교학 박사 모두 92명

미국에서 한국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미주현대불교> 5월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두 92명이다.

한국불교학 관련 최초의 박사논문은 이상근씨의 '요한복음에서의 예수와 대승불교에 나타난 붓다의 비교' (달라스대, 1969)이며, 석사학위 논문은 중앙대 설립자인 임영신씨의 '한국 이 불교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한 주요 원인들' (남가주대, 1933)이다. 스님이 쓴 최초의 박사논문은 서경보 스님의 '조당 집을 통해 본 한국선 연구' (템플대, 1969)다.



◇스님으로는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서경보 스님.



◇가장 최근에 학위를 받은 소운 스님.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들은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법안 지명 법다 진월 화공 소운 스님 등 7명에 달한다.

스님들의 박사논문은 △법안스님의 '원효, 원웅의 이론' (뉴욕대, 1983) △지명스님의 '천태의 불이철학' (템플대, 1988) △법다스님의 '20세기 북한 불교에 대한 연구-한국 조계선의 전통과 사상' (서던캘리포니아대, 1996) △진월스님의 '조선후기의 선사와 불모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1998) △화공스님의 '중국에서의 한국 유식과 스님 원숙-원숙과 심경 주석서' (위스콘신 매디슨대, 2000) △소운스님의 '능가경 인도주석서에 대한 연구-종편과 유식사상' (하버드대, 2002) 등이다.

특이한 것은 유철옥(1976) 김득해(1978) 정희수(1994) 등 목사 3명의 논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목사들이 쓴 한국불교학 관련 논문은 △유철옥 목사의 '니시타 기타르스의 절대무' (보

스턴대, 1976) △김득해 목사의 '임진왜란과 승병' (콜롬비아대, 1978) △정희수 목사의 '극락장엄경과 신라정토 불교의 형성' (위스콘신대, 1994) 등이다.

외국인들도 한국불교학에 대한 6편의 연구논문을 냈다. △UCLA대 버스웰 로버트 에반스 교수의 '한국불교 초기

대, 1980) △일본 도쿄 가쿠엔대 찰스 윌러 교수의 '원학 기화스님에 대한 연구' (스토니브룩 뉴욕대, 1993) △맥 브라이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라불교 의식' (캘리포니아대, 2001) 등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4년을 분기점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1959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 26명이 박사학위를 받은 반면 1984년 이후 18년 동안 세 배에 가까운 66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5~6명이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불교 또는 불교학 연구가 활발한 대학으로는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미시간주립대, 위스콘신주립대, 버지니아대, UCLA, 보스턴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시라이대 등이 손꼽힌다.

스님은 7명...서경보 스님 첫 학위 취득

유옥철 씨 등 개신교 목사도 3명 포함

의 위경에 대한 연구' (버클리대, 1985) △고울드 존 이삭의 '14, 15세기 한국의 역불 논쟁' (하버드대, 1985) △웨슬레이 언더 조나단 라이트 교수의 '백제불교의 역사와 조각미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 (하버드대, 1976) △하와이대 오딘 스티브 교수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화엄불교의 해석' (스토니브룩 뉴욕

대학, 1990) △일본 도쿄 가쿠엔대 찰스 윌러 교수의 '원학 기화스님에 대한 연구' (스토니브룩 뉴욕대, 1993) △맥 브라이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라불교 의식' (캘리포니아대, 2001) 등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4년을 분기점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1959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 26명이 박사학위를 받은 반면 1984년 이후 18년 동안 세 배에 가까운 66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술담당=권형진 기자 jiny@buddhopia.com

사이버 속의 나는 누구인가?

박재현 씨, 정체성 문제 불교가르침 통한 해답 제시

화쟁사상, 화해 아닌 소통으로 봐야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 사이버 게임에서는 누구나 '최선'이거나 '최악'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가상 공간 속에서는 버젓이 하기도 한다. 요컨대 현실 속의 나와는 다른, 가상 공간 속의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이버 시대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에서의와 전혀 다른 것일까? 그리고 불교는 이런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20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현대불교사회문화원 4차 포럼에서 '타부를 넘어서-사이버 시대의 화쟁사상-'을 발표한 박재현(서울

대 강사) 씨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사이버 시대에는 소통의 목소리가 요구된다는 전제 아래 '불교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바로 소통의 목소리'라며 '원효의 화쟁 사상을 화해의 뜻이 아닌 소통의 의미로 파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기 정체성이 확장될 형태라 할 수 있는 민중성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 박 씨는, 정체성을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할 때 민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제의 차별의 기제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파악한다. 민중성을 명분으로 진행된 근대 제국주의에 이르면 정체성은 일체의 접근을 거부

하는 '타부'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사이버 시대의 문제는 사이버 세계의 가상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가상성이 자신의 가상됨을 숨기거나 망각하게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실제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데 있다"며 "전통적 실제적 세계관에서는 사이버 시대나 마찬가지로 관건은 화쟁, 즉 소통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통찰하는 달리 다름과 대립의 화해가 아닌 '소통'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 화쟁 사상의 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박 씨는 계간 <불교평론> 2001년 겨울호에서도 <심문 화쟁론>과 <열반종요>,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 등에 나타난 '화쟁'의 용례를 통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종교간 대화없는 세계평화 없다"

오강남 교수,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서서

전세계 한국학의 특징과 쟁점을 논의하고 21세기 한국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가 18~20일 열렸다.

16개국 8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대 한국의 개발론' '근대 한국의 개발론' '근대, 근대성 고찰' 등 21개 세부 주제로 나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특히 관심을 끈 분야는 '21세기 한국의 종교와

가치관'을 다룬 제3분과다.

<예수는 없다> 등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오강남(캐나다 레지나대, 비교종교학·사건 교수)은 '타종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의 태도-21세기 기독교인을 위한 분석과 전망-'에서 타종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오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일반 대중은 여러 종교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견해였는데도 이렇게 유연하던 일반 대중의 종교적 심성을 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찾



오강남 교수,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서서

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국은 전통적 사상인 '혼' 사상이나 원효의 화쟁론, 화엄 사상 같이 다원주의적 시각을 함양하고 고요하는 정신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종교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불가능하고, 종교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간의 평화 불가능하다"는 한스 쾨링의 말을 결론을 대신했다.

양양 선림원 사상과 불교미술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

(새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태)는 7월 4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양양 선림원의 사상과 불교미술'을 주제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권기종(동국대) 교수가 비문을 통해 본 선림원의 역사와 사상을 발표하고, 문명태(동국대) 교수가 '선림원의 본존불상 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을,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선림원 삼층석탑의 조형적 특징과 의의'를, 최흥국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신라 범종 양식 변천에서 차지하는 선림원종의 의의'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병조, 박도화, 최성은, 임영애, 이강근, 김정희, 김창근, 강순형 궁중유물전시관장이 참석한다.

학회소식

'중국불교와 선의 언어' 주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중국 불교와 선(禪)의 언어'를 주제로 제46차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

차차석(동국대 강사) 씨의 사회로 구고홍(중국 길림성대) 교수가 '청대 평택종의 화엄정토사상 탐토'를, 서대원(연세대 강사) 씨가 '언의지변(言意之辯)과 교의별전'을 발표한다.

김진두(동국대 강사) 씨와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가 각각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02)733-5315

2002년 춘계학술대회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회장 박경일)는 7월 6일 오후 1시 30분 경희대 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0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연다.

박경일(경희대) 교수의 '동양담론은 공허한가?'에 이어 <연경별찬>에 나타난 설장 김시습의 문학과 사상' (이기운, 동국대) '미국의 불교 붐' (류황태, 동의대) '토니 모리슨의 원시적 시간 개념과 노장 사상의 무위자연적 시간' (이영철, 한양대) '동양적 상상력과 뒤랑의 신화적 상상력 비교' (한태호, 관동대) 등 5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발표회 후 간담회와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123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달 개관

연건평 1082평, 대장경 소개·연구·교육 특성화

총 연건평 1082평 규모로 1층에 역사실, 조각실, 불화실, 공예실, 서화실 등 5개의 전시실과 지하 기호 전시실, 과불 전시실, 2층 대장경인행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고려 팔만대장경이 있는 사찰답게 고려대장경에 대한 소개와 교육, 연구 분야를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층 전시실은 벽면부터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벽화로 장식하고 세계적 비디오 예술가인 백남준의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 상영, 대장경 제작과정을 담은 디노라마, 대장경 인행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해인사 소장 유물 중 동안 일반에 공

개되지 않았던 국보급 유물들도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대거 공개된다. 국보 32호 고려대장경판, 국보 206호 고려각판을 비롯해 사명당 휴정이 조선 선조에게서 하사받은 유물들과 보물 999호인 목조 회랑 조사상,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해인사 중건 상량문, 보물 1273호 영산회상도 등 모두 37점이 전시된다.

관장 향적 스님은 "성보박물관 개관으로 창고 속에 갇혀 있던 해인사의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팔만대장경 중심 박물관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5)934-0988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7월 5일 개관한다. 사진은 조각실에 전시될 보물 999호 목조 회랑조사상.

특히, 수행하시면서 쉬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 엑기스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감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뤘습니다」

- 지은거사 -

-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1개월분 120,000원 (택배비 포함)
- 민물장어 6kg + 십전대보탕 1개월분 150,000원 (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형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승 및 불자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도반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이태승복 직원일투 -

<p>추추복</p> <p>재질: 면 50%</p> <p>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p> <p>2. 동복 W110,000</p> <p>3. 두무마 W120,000</p>	<p>범복</p> <p>재질: 면 50%</p> <p>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p> <p>2. 동복 W110,000</p> <p>3. 두무마 W120,000</p>
--	---

※ 순면(무지 있는 역물) W130,000
※ 허복 구입하고 4일이후에 용이한 재질 W130,000
※ 장삼, 가사, 바담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죽대리점 053) 5047777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053)741-8131
FAX: (053)741-8132
H.P: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속편안한세상

부건 속편 차(茶)

위 속편 차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과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어진 차입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살맛난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이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 6966 / 017-724-3355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염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쭈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